

생필품 구입 발품 팔면 최대 80% 절약

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 3월 가격 분석

백화점·마트·시장 등 판매점 따라 천차만별 가격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 가격이 판매점 종류별로 각각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가격정보 종합 포털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올해 3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전통시장)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5.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 '테크(단품)'의 경우 최고가가 1만8500원, 최저가 3360원으로 가격 차이가 5.5배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P&G '페브리츠 깨끗한 무향(900ml)'의 최고가는 1만1400원, 최저가는 2500원으로 4.6배 차이가 났으며, 유니레버 코리아 '도브 뷰티바'의 경우 최고가 8050원, 최저가 2210원으로 3.6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3월 생필품 가격 중 1월 대비 최고·최저 판매 가격차이가 줄은 제품은 '맥스웰 하우스 오리진(175ml)'다. 이 제품의 경우 1월 5배를 기록한 것에 비해 3월 최고가 800원에서 최저가 200원으로 3.6배 차이로 줄어들었다.

또 이번 120개 품목의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3월 낙농·축산가공품과 채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1월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월 이후 평균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품목은 총 21개(17.5%)로, 양파(18.8%), 닭고기(11.7%), 쌀(11.1%) 등이 10% 이상 상승했으며, 마가린(-7.7%), 버터(-7.2%), 설탕(-5.6%) 등 총 14개(11.7%)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월 대비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은 '하림 토종닭백숙(1050g)'(34.3%)



이 가장 높았고, 가격 하락률은 섬유유연제인 '피죤 용기 엘로미모사'(-30.2%)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난 만큼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전 생필품 가격정보 포털사이트인 '참가격'에서 판매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최초라던 '귀뚜라미'의 기술 (열교환기·콘덴싱) 외국서는 150년전부터 사용

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조사
최대 생산·무사고 문구 제재

보일러업체인 귀뚜라미가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 설명한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자로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제품에 적용된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과 관련, 해당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 기준으로 귀뚜라미의 연간 생산량은 43만여 대에 그치고 독일 바이란트사가 연간 164만대를 생산함에도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 이상"이라고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일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귀뚜라미 보일러 TV광고의 한 장면.

귀뚜라미는 관련업계에서 보편화한 가스감지 기술이 마치 자사만의 특이한 것처럼 설명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2.5배 빠른 난방가동시간' '실사용 효율 99%' 등의 과장된 광고문구를 남발했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는 문구와 달리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로 확인됐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일러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석유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주유소 제도 도입

품질보증프로그램 대폭 보완

석유관리원 매월 검사·관리

가짜 석유를 걸러내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주유소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1호점 협약을 가졌다.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없이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해 적용했다.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업체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전산으로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5년 간 가짜석유가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해는 월 1회 이상, 내년부터는 월 3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에는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주유소(EX알뜰주유소)에서 열린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 및 현판 제막식'에서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장 등 참석 내빈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해외 직구 피해 급증...대부분 배송 관련

국내법 적용 어려워 구제 난항

해외 온라인 쇼핑물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 쇼핑물 직접 구매(직구) 관련 상담이 2013년 149건에서 2014년 271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3월까지 140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3월 접수된 직구 관련 불만은 411건으로, '배송 지연·오배송 및 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하자(불량·파손) 및 AS 불만'(18.0%), '연락 두절 및 사기사이트 의심'과 '취소·교환 및 환불 지연' 또는 '거부'(각 15.6%), '결제 관련 불만'(7.0%), '반품·취소 및 추가 수수료'(3.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상담이 많이 접수된 해외 온라인 쇼핑물은 아마존(30건), 이베이(10건), 아이허브(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할 경우 국내와 다른 교환·환불 시스템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피해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물은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므로 업체 주소와 연락처 유무, 이용 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국제거래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해외직구 피해 다발 업체, 사기사이트 등 정보를 수집해 신속하게 소비자와 공유하고 피해 구제를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한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